

# KTR 대경본부 구미 설립 MOU 체결해

## 국내 최대분야 시험인증기관' 들어선다, 구미1산단에 오는 7월 설립예정



경북 구미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김장호 시장, 구지근·강명구 국회의원, 구미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국가기술표준원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구경북본부를 구미에 설립하고,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

해 마련됐다. 본부는 오는 7월 구미1산단지 내(수출대로 137)에 들어서며, 약 50여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최근 산업 전반에서 기술 고도화와 융복합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품 안전성 검증과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인증 및 기업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구미시는 이번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구경북본부 설립 시험·인증 인프라를 지역에 내

재화하여 기업들이 외부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제품 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시간을 단축시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구경북본부는 금속소재 부품, 재사용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시험 접수부터 시험·성적서 발급, 인증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과 연구기반 활용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대구경북본부 설립은 지역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며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윤석 기자

# 제6차 서부산스마트밸리 혁신성장 간담회 개최

## 기업과 현장이 변화의 시작! 성장 기반 확충 및 근로환경 개선 방안 논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차에서 5차까지 접수된 건의 사항을 검토해 ▲지역 기업 사이버보안 지원계획 수립 ▲정관산단 청년문화센터 가변식 체육시설 포함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차보전율 상향 ▲수출 주력기업 지원 등 현장 의견을 정

책에 지속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46년 만에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유치업종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2026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에 응모해 ▲문화 ▲예술 ▲청년기 활력이 결합된 미래형 복합 공간으로 제도와 할 계획이다.

구조 개편은 입주기업 의견을

반영해 단계별·업종별·권역별 전략에 따라 추진되며, 산업단지 기능과 유치업종은 5년 주기로 재검토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선도산단 선정 시 청년과 문화, 산업 혁신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7개 테마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동 상황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기업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중동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해 3천5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리스크 대응 특별자금' 공급 등을 지원했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 제조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유우 기자

# 경남 새로운 업무 일상 '섬택근무' 운영

## 올해 섬택근무 시행...남해 조도 신규 추가 및 통영 두미도 시설 확충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섬 마을 활성화 모델로 자리잡은 '섬택근무(섬+업무+휴식)'가 오는 8월 통영 두미도 남구마을에서 첫 운영을 시작한다.

경남도는 올해부터 기존 통영 두미도에 이어 남해 조도를 새로운 섬택근무지로 추가 지정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근무지 확대와 인프라 고도화다. 수려한 해안 경관을 갖춘 남해 조도를 신규 근무지로 추가하면서 참여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

통영 두미도에는 기존 북구마을을 스마트워킹센터에 더해 남구마을에도 별도 섬택근무 사무공간을 조성해 수용 인원을 확대했다.

또한, 모든 근무지에 공공기관 원격접속 프로그램(K-VPN)이 탑재된 최신 데스크톱을 구축해 보안이 강화된 원격근무 환경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분청과 동일한 업무 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스마트 오피스' 기반을 갖췄다.

올해도 경남도와 협약을 맺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두미도

에서 직원들의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섬전문 기관인 한국섬진흥원에서는 섬택근무를 통해 현안업무를 수행하고 섬의 가치를 연구함으로써 섬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 등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섬택근무는 배편이 적은 작은 섬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고, 근무자에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섬택근무를 업무와 휴가를 병행하는 '경남형 위케이선'의 핵심 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 ▲전통 방식의 손맛을 느끼는 통발낚시 ▲청정 해역의 수중 비경을 탐험하는 스낵스쿠버 ▲섬의 해안선을 따라 걷는 치유의 시간 바래길 투어 ▲자연 그대로의 신선함을 깨는 해조류 채취 ▲주변 무인도와 비경을 둘러보는 섬 투어 등 오감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어촌의 삶에 머무는 깊은 치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최성룡 기자

# 반려동물과 함께 어울려 '김해맹당파크' 개장식 개최

## 총 사업비 52억 원 투입해 조성, 반려동물과 쾌적한 환경서 여가 즐겨

김해시는 3일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김해맹당파크' 개장식을 개최했다.

개장식은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여가 공간의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김해시립합창단 공연과 반려견 프리스비 퍼포먼스 등 신선한 프로그램을 비롯해 기념식과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반려견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다.

특히 반려견과 함께하는 체험 활동과 부대행사는 참여 시민들

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현장 분위기를 한층 활기차게 했다.

김해맹당파크는 가야테마파크 동측 어방동 984-2번지 1만5,412㎡ 부지에 총사업비 52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반려견 놀이터와 산책로, 휴게 공간, 관리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개장식에서 시민들은 "반려견이 목줄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좋다",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해시는 이번 정식 개장에 앞서 시범 운영을 통해 시설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공영 완성도를 높였다. 김해맹당파크는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관련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기반 시설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김해맹당파크 개장을 통해 시민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도 다양한 기반을 확충해 김해시가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 관로의 변형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신속관변형 원격계측시스템'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신규 상수관로 매설구간과 기존 관 구간에 기술 적용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2026년 24개소, 2027년 156개소, 2028년 108개소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최성룡 기자

# 울산시 중·남·북구 일부 지역에 대한 수돗물 단수안내

## 4월 7일~5월 27일,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50분~수요일 오전 5시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4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5월 첫째, 셋째 주 제외) 매주 화요일 오후 11시 50분부터 수요일 오전 5시까지 약 5시간 동안 중구·남구·북구 일부 지역에 대한 단수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번 단수는 해당 지역 소블록의 상수관망 블록 고립 여부를 확인해 상수관망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실시된다.

각 세대에서는 단수 시간 동안 저수조 유입 밸브를 차단하고 유입 밸브 개방 전 흐린 물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단수 작업 후 일시적으로 흐린 물이 발생할 수 있어 저수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및 대형 건

물에서는 미리 저수조에 수돗물을 채워두는 것이 중요하다. 단독 주택 및 다세대 기구는 생활용수를 미리 받아두고, 흐린 물 발생 시 충분히 방류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상수관망 블록고립 확인 용역을 통해 상수도 블록체계의 고립 여부를 확인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상수관망 유지·관리를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를 위해 2024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총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수관망 블록고립 확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호근 기자

# 대구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훈련 실시

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3일 달성군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대형산불조심기간 및 청명·한식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에 맞춰 기관 간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산림청(구미국유림관리소), 대구소방안전본부, 제501보병여단, 8개 구·군 등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산불진화인력 130여 명과 진화장비 15여 대가 투입됐다. 훈련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현장 대응을 연계하고,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재난안전기동대가 주불 진화에 나섰고,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민가 보호 활동을 수행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구·군 합동진화대와 제501보병여단 병력이 투입돼 잔불 정리를 실시했으며,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뒷불 감시까지 산불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대응했다.

아울러, 대구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다목적 산불진화차량과 대구소방안전본부의 협지펌프차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현장 대응능력을 실증하고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운영 상황을 시연했다. 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 협력체

를 기반으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연계한 전술훈련을 정례화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훈련에 참관한 김정기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산불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재난이며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했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와 체계적인 진화전술을 바탕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대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 원인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한윤석 기자

# 경상북도 '신규 상품개발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경상북도는 도내 유망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K-통합 마케팅 생태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상품 기획부터 디자인·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신규 상품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13개 시·군(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도, 성주, 철곡, 봉화)에 소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기준 매출액 120억 원 이하 기

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 ▲상품개발 (시장조사, 제품 컨설팅,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콘텐츠 제작(온라인 판매용 상세페이지 제작) ▲판촉지원(할인쿠폰 지원 등 판매 프로모션 지원)이다.

선정된 기업(33개사 내외)에는 신규 상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상품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2일(목)부터 4월 20일(월)까지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상북도경

제진흥원 홈페이지 내 지원사업 안내'메뉴에서 '상품개발'을 검색해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본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으로 하면 된다.

이재훈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걸친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는 것인 '강한 기초체력'을 기르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며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지

원해 경제제품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시군 공동(총 15개 시군 참여)으로 K-통합 마케팅 생태계 조성사업을 신설해 이번 신규 상품개발 사업 외에도 ▲맞춤형 마케팅 패키지(온라인 광고, 콘텐츠 제작 등) ▲오프라인 특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기업의 판로 역량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윤석 기자